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2월 29일(금)
--(윤력 11월 17일)--
Пятница
29 декабря 2023г.
№ 50 (1206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레닌광장. 2024년 청룡의 기운으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시길.

(이예식 기자 촬영)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

눈 깜박할 사이에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
다. 2023 '흑토끼의 해'가 저물고 2024년 갑진
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사할린동포들에게 복잡하고 갈
등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결
된 사할린한인문제에 집중하여 새롭게 조명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야 한인단체가 있
어서 '사할린한인문제 추진이 촉진되지 않을
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바라는 것은 동포사회의 단결입니
다. 그래야 사할린한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강
하게 들릴 것이고, 미결 문제의 해결에도 도
움이 될 거라 봅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유일한 한민족지 대표로
서 우리 신문 애독자들이 있기에 우리 신문이
존재하고 있다고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
히 전채련, 이순귀, 이근신 등 같은 분이 우리
민족지를 거의 첫 호부터 70여 년간 애독하
고 계셔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신문에 글을 투고하시는 허진
원 작가님,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님, 하이 울
가 미술 전문가님, 임 엘비라 교수님, 최 빅
토리아 소설작가님을 비롯해 여러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을 기대
합니다.

또한 거의 30년간 우리 신문에 후원 차원
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실어주는 <라직스>
치과병원 전영식 원장님, 부탁할 때마다 손을
잡아 주시는 <1+2>가구공장 이용길 사장님,
장기간 저희 신문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정성훈 감독님, 항상 협력하는 '아리랑.루'사
이트 운영자인 신 드미트리 작가님, 신문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김민정 작가님, 홍용
호 교수님, 항상 뒷받침하시는 안산 고향마
을 노인회 주훈준 회장님, 그리고 사할린 한
민족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설운
창 박사님, 이정홍 교수님, 서재길 교수님, 항
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해주심에 고마울 따
름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본지를 지켜주시고, 애독
해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이면 우리 신문은 창간 75주년을 맞
이합니다. 사할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새고려신문은 앞으로도 신뢰 있는 뉴스를 전
달하고, 한글과 민족의 얼을 지키는 파수꾼으
로 남아있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갑진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
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에 모든 계획이 다 성
취되며,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올림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해와 성탄절을 축하
드립니다! 이 명절들은 우리 마음속에
기적에 대한 꿈을 일깨우며, 우리의 나
이가 얼마든 우리는 새로이 반짝이는
성탄트리 조명과 장식품들 앞에 아
이처럼 감동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마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소소한 것들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
람들을 사랑으로 존중해주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
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 세상
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따듯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새해 전날에 그간 총결산을 하기도 합니다. 2023년
에 우리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항을 건설했고, 와니노와
흠스크 노선의 '알렉산드르 제예브' 라는 새로운 여객선
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구역의 주택가와 주택 입
구를 보수공사하고, 수백 가구가 노후주택으로부터 이
주했으며, 종합 격투 스포츠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공부하게 될 사할린 테크 캠퍼
스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다가오는 해에도 늘 행운이
따르며, 가장 담대한 꿈과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이뤄지
고, 좋은 희망들이 다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과 번영으로 가득하며, 여러분
에게는 강건함과 사랑과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신년 인사말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
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밝아오
고 있습니다.

급변 한 해를 되돌아 보면,
복잡한 국제관계 및 세계 경제
의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사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항
상 단결과 인내심으로 함께 극복해왔습
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
과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유지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민족
의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힘들
고 마음 아팠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시
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
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2024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
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희 출장소
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어
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
다. 우선, 2023년 미시행된 사할린 동



포 영주귀국 대상자 입국 방안
모색 및 2024년 영주귀국 사
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
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동포
1세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동
포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도
록 하겠습니다. 동포사회 전체
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동포사회
와 소통하여 동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도 지혜를 모아 동포사회
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
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로서
고요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권위와 힘, 행운과
부, 장수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사할린 동포사회에 풍요
와 번창이 깃들기를 바라며 2만 4천여
사할린 동포분들과 한국에 거주하시는
4천여 사할린 출신 한인동포분들의 가
정에 화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
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출장
소장 박상태 드림

"2023년에는 우리 꿈이 이루어졌다"



본지에는 전통적으로 매년의 마지막 호에는 '올해는 어떤 해였나'란 주제로 미니인터뷰를 게재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의 답변만 실린다. 사할린에 잘 알려진 '하늘' 한민족타악기 그룹 지도자인 송 알베르트는 올해 오래 전 꿈이 이루어졌다며 많이 기뻐하였다.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진도에 있는 남도국악원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다. 송 단장에 따르면 청년 6명이 이번 연수기회를 통해 새로운 악기와 새 작품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연수가 정말 유익하고,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고 전했다. '하늘'그룹 지도자는 남도국악원에서 연수받고 싶다는 꿈을 이미 몇 년 동안 꾸어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원을 이룰 수 없었는데 드디어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주한인협회를 통해 이 꿈이 이루어졌다며 송 알베르트 단장은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견 온 첫 사물놀이 강사 목진호 선생님을 이번에 만나 같이 며칠을 지내며 연수 동안 받은 지식을 다시 연습할 수 있었다.

한 자리에 서있지 않고 항상 앞으로 움직이는 '하늘'그룹은 새 작품을 준비하고 현재 모스크바에서 초대한 강사에게서 연습을 받고 있다.

"믿고 추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다가오는 해에도 행복하시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란다."고 송 알베르트가 새해 인사를 전했다.

(배순신 기자 적었음)
(사진: '하늘'그룹 제공)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제17406호)을 발의(2022.09.19.)하였다. 이후 2023년 9월 21일 외통위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12월 20일 제411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실태조사 의무화,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직계비속 1명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 동포지원 근거 마련이다.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정안에는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새로이 명시했다.

영주귀국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개정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8조를 신설하여 지자체 조례의 상위법으로 근거를 두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영주귀국대상을 확대하는 점에서는 환영하고, 긍정적이지만, 영주귀국 대상의 확대에 있어 중대한 사각지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 사할린동포법의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사할린동포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

이 직계비속을 영주귀국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외교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지만, 법제정 후 시행령 제정 당시 외교부는 동반가족의 용어상 사망한 동포의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사할린 한인협회는 사할린 동포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원과 호소를 통하여 '동반'가족만을 영주귀국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여전히 비인도적이며, 수혜자에게는 중복 혜택이 되며, 비수혜자(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가족: 편 의상 부모사망 2세로 지칭한다)는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할린 동포가 사망하여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한국에서 홀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자녀와 사할린 현지의 부모사망 2세들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는 사할린 동포와 함께 영주귀국 후 사할린 동포가 사망하여 한국에서 홀로 살고 있는 배우자 중 1945년 8.15 이후 출생자이다.

사할린 한인협회의 추산으로는 현재 사할린에 남아 있는 1세는 530명, 2세가 약 5천 명이며, 이 중 부모 사망 2세는 약 3천5백 명이다. 그중 영주귀국희망자는 약 2천~2천5백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할린동포법의 개정에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 징용 대상인 1900~1920년대생은 영주귀국이 시작된 1990년대에도 생존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 사할린동포법의 '사할린동포'정의는 1945.8.15.을 기준으로 하는 바, 세대대로 보면 1세와 2세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살아 있는 사할린 동포의 자녀를 모두 영주귀국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대상을 크게 확대한 면은 있지만, 부모 사망한 2세들은 부모도 한국을 못 가고, 자신들도 못가는 처지인데 조

카벨의 3세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문제가 해방 당시에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2세대까지는 귀환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할린 동포의 생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 2세들도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자녀세대들이 영주귀국 과정에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동포를 정착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지만, 국적 판정 기간에 놓여 있는 젊은 세대들은 당사자들도 처음 겪는 업무들을 처리해야하는데 옆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이가 없는 게 문제다. 특히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언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3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직업도 가져야 하는데, 언어와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영주귀국대상을 확대한 만큼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당초 영주귀국 대상이 350명이었다가 올해부터 270명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영주귀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 한국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정책을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였다. 역사적 아픔을 지닌 동포들을 보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도 발표하였다. 사할린 동포법의 적용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할린 동포법의 개정안을 재외동포청이 발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영주귀국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주귀국 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착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2023.12.21.
KIN(지구촌동포연대)

이 모 저 모

올해 사할린주 학생 3만6천 명이 학생 사회관광프로그램에 참가

2023년 사할린과 쿠릴 지역의 학생 3만6천 400명이 지역에서 개최하는 학생 사회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지역의 명소들을 알아보고, 대형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고, 지적게임을 하며, 다양한 기업들의 직업 비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학생 사회관광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린 세대들에게 작은 향토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 형성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획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섬들의 명소만 아니라 경제 분야도 알아가길 바란다. 사할린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가 변모하고,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견학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듣고, 여기 사할린에는 전문적인 자기실현과 사회적 진출을 위한 모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할린주 관광부 아르좁 라자레브 장관이 말했다. 이에 빠질 수 없는 오락 일정으로 학생들은 극동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아쿠아 시티'를 방문하고, '두뇌싸움' 지적게임에 참가했다.

문화기관들도 새로운 견학방식을 제안한 가운데 문화기관의 직업에 대해, 박물관과 영화관에 자주 남는 뒷얘기를 얘기해주었다.

Bolee 36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этом году

В 2023 году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приняли 36,4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Ребята знакомятся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региона, посещают крупнейши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и узнают о секретах профессий на различ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 Программа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 особый

проект для нас, решающий важные задач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чувства патриотизма, любви к малой родине у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знакомились не только с островны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но и с отраслями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ь развивается большими шагами: преобразуются города,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професси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рамках экскурсий дети могут пообщать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офессий, получить ответы на волн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понять, что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ах,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Обязательным остается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блок: школьники посещают самый больш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квапарк «Аква Сити» 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е «Мозгобойня».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и новый формат экскурсии – рассказав о профессиях, часто остающихся в «закулисье» музеев и театров.

사할린 '오스트로바' 포럼이 전 러시아상 수상

사할린의 '오스트로바' 포럼이 로스몰로즈쥬(러시아 연방 청년청)상인 <청년의 시대>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할린에서 열린 교육적 행사가 <올해의 포럼> 부문에서 우승의 자리에 올랐다고 연방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사할린의 청년포럼 <오스트로바>와 함께 <마슈크>(스타브로폴리에 변경), <이스토키>(프스코프 주) 포럼이 전 러시아 로스몰로즈쥬 우수 포럼으로 인정을 받았고, 포럼들 중 상을 받은 포럼은 <아이볼가(иВолга)> (사마라 주), <우트로(아침)>(첼라빈스크 주), <나 월네(파동으로)>(연해주)이다.

로스몰로즈쥬 및 행사의 플랫폼으로서 <오스트로바>사할린 포럼은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사할린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전국 88개 지역들에서 14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 500명이 참가했다. 포럼의 일환으로 교육과 만남, 러시아 유명인의 활동교실을 비롯해 로스몰로즈쥬 장려금 경연도 열렸다. 이 경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상금도 받게 되었다.

Сахалин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Ва» получил всероссийскую премию

Форум «ОстроВа»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Росмолодежи «Время молод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ошло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и «Форум года», сообщили в федер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форумом «ОстроВа» лучшими всероссийскими форумами Росмолодежи признаны «Машук»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и «Истоки» (П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Лауреатами премии среди окружных форумов стали «иВолга» (Самарская область), «Утро»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На волне»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Форум «ОстроВа»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ежь проходил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8 по 13 августа.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500 человек из 88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организовали обучение, встречи,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известных россиян,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Росмолодежи — благодаря нему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их идей.

유즈노사할린스크 산악스키 시즌 개막

12월 24일(일) 사할린 지역의 주민들과 방문객 수백 명이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에서 스키 시즌 개막식을 거행했다고 스키장 측이 전했다.

시즌 개막을 맞아 스키복과 새해 복장을 하고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해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무료로 리프트를 중간역까지 운행한 가운데 여기서 추위할아버지와 눈꽃소녀가 선물로 모두를 맞이했다.

이날 겨울 스포츠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스키 코스를 위한 스노우 트랙터와 눈설매, 버기카, 허스키 개썰매 전시회를 볼 수 있었고, 추위할아버지와 만나며, '루스키 썰렘'예술단의 공연도 관람했다. 또한 '기오르기'레스토랑에서 한칼리 빗기 체험교실에도 참여하고, 새해 카드 만들기 교실, 아동댄스 플래시몹, 산에서 대규모 도전게임과 기타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전례대로 스키단지에서는 협찬이 제공하는 상품추첨도 열렸다.

(8면에 계속)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전하다

새해가 다가오니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자원봉사 행사를 비롯해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할린한인 동포단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르사코브 어르신, 동지날 맞이

지난 22일(금) 동지날에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상을 차렸다. 팔죽은 이날 직접 1세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코르사코브 한인회 박창순 부회장(노인정 담당)이 전했다.



(사진: 코르사코브 한인회 제공)

사할린한인연합회, 85세이상 어르신들의 덕 방문

얼마 전에 새로 설립된 사할린 한인연합회의 임원들과 청년부가 동지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의 7가구를 찾아 팔죽과 새해 선물을 전달하고, 식품과 함께 KIN(지구촌동포연대)에서 제작한 2024년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도 전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달력 제작에 후원금이 모자라다는 소식을 듣고 사할린한인연합회도 보조금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도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도 정말 반가워했다고 연합회 측이 전했다.



(사진: 사할린한인연합회 제공)

건강관리 프로그램 차원의 연말연시 만남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르신들의 모임이 지난 23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1세 어르신들은 내과 의사의 진단과 물리치료를 받고 치매 예방프로그램과 운동요법을 익혔다. 어르신들을 위해 이날 맛있는 밥상도 차려놓았고, 또한 새해 선물도 준비하며, 킨 단체가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4'도 전달했다.



'현지 사할린 잔류 1세 한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주청년회가 진행하고 있고 한국보건복지부, 한국 국제의료보건의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군병원에 새해 선물 전달

지난 25일(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임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군병원의 행사를 찾아 새해 선물을 전했다. 이날 군병원 원장 남 위탈리 의무병 중령은 병원 의료진 및 직원 일부에게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공로' 명예훈장을 수여했는데 수혜자 중 동포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날 여러 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이 병원 의료진들에게 새해 선물을 전했다.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측에서 임원한 군인들을 위해 80개 선물세트를 전달했고 그리고 천영곤 회장은 남 위탈리 원장을 비롯해 우수 의료진 5명에게 직접 새해 선물을 전달했다.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측에서는 군병원을 위해 하는 자선행사는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사업, 특혜자금 20억 루블리 이상 받다

국가기획 <중소기업>이 시작된 이래 사업을 위해 우대금리로 정부대출 853건이 지급됐고, 올해는 그중 197건의 정부대출을 지원했다. 다양한 방면에 기업 지원 결과가 사할린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라브로' 기획 창립자인 크세니야 라보와는 "올해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개점했다. 저에게 전 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준 가운데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회적 계약을 맺고, 교육을 받도록 해주며, 사업-산실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다. 법인 등록에서부터 장소 선정, 허가 등록, 간판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산실은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운영되고 있는 기획을 확장시키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은 서비스, 관광산업, 스포츠, 교육, 정보기술, 기술연구 분야에서 26개 회사를 설립하도록 도왔다.

사업-산실은 사할린주에 기업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나선 <나의 사업> 센터 구조에 소속돼 있다.

여기서 사업등록을 도우며, 과세제도를 선택하고, 무료교육을 진행하며, 은행의 보증을 받아 우대 대출을 받으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다. 농민 지원에 따른 특별사업도 전개하는데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며,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돕는다.

올 초부터 4,500명의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나의 사업>센터의 고객이 되었다.

2023년 사할린의 자영업자들과 기업가들은 197건의 정부대출로 4억 1천만 루블리를 받았다.

최저 이자율은 4%이며, 사업가에게 9억2,600만 루블리에 달하는 은행대출에 대해 169건의 보증을 해주어 20억 루블리 이상을 회사들에 유지하도록 했다. 5년간 우대금리로 특혜에 따른 소액 대출 금액은 20억3,400만 루블리에 달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올 초부터 전문가들이 여러 문제들에 따른 2천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40회 이상 사업-행사를 열며, 5차례 전시- 직거래시장을 열도록 했다. 새해에 앞서 마지막 행사로 30개 소규모 자영업체들이 자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수출지원협력센터 덕분에 18개 관광 및 수산업체가 총 미화 650만 달러 규모의 대외무역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11개 기업이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했고, 12개 기업이 중국 푸저우와 칭다오에서 열린 두 개의 어업전람회에 참가했다.

농업협동개발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올해 소비자협동조합과 11개 농민농장산업이 설립되었고, 28명의 사할린 주민이 마을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 사업-산실센터의 고객들은 사할린주 농산업 경제와 무역부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1억4천만 루블리 이상을 받았다.

노동생산성 분야의 전문 지역센터에서는 사할린 기업들의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주에서는 린 기술 분야 전문가의 지도 아래 30개 회사가 내부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데 '노동의 생산성' 국가기획 덕분에 무료 지원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또 하나의 지원 분야는 26개 종목 지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상환이다. 2023년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2억 루블리가 배정됐으며, 사업프로그램 시행 초부터 13억6,800만 루블리를 보상했다.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계획을 위한 보조금으로 4억2천만 루블리가 지급되어 이에 수산업, 운송, 광물 채취 분야의 7개 회사가 도움을 받았다. 지역에 현지 기업을 위한 전문가 선정 지원으로서 '사할린 - 기획의 섬' 비영리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전문인을 찾으며, 인터뷰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이 현지로 이동하도록 조성한다.

현재 사할린 주정부의 지도 방향은 지역 브랜드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통합 상표가 핵심 요소다. 자회사 제품의 품질이 인증되고, 표준 서비스에 적합한 자영업자와 조직은 지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중소기업> 국가기획으로 사업지원이 편리해졌다. 5년간 사할린 주민들의 이 기획의 실행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판매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설·추석 등 5개 명절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가족·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승된 우리 명절의 고유성과 다양성 인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 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기획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 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뤄지는 '추석', 팔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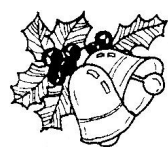
또한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웃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오며 문화적 다

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돼 있거나(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돼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율농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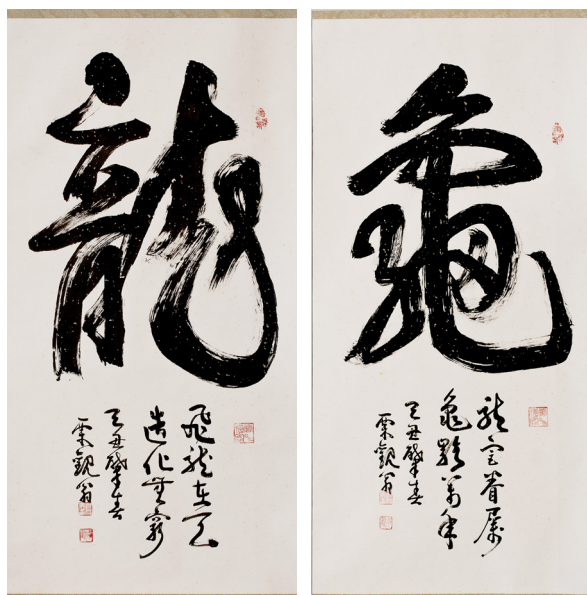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Из фондов СОХМ

Искусство каллиграфии сое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Юльвана «Дракон» (2008 г.) и «Морская черепаха» (2008 г.) занимают пограничное положение между живописью и каллиграфией. Бён Чхан Хон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л иероглиф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визуально они стали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передаче образов высокого парения мифического дракона и устойчивой весомости неспешной черепахи. Их изображения, построенные на эмоциональ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выразительности живописно-графического языка иероглифов, дополнены надписями-темами к свиткам: «Парящий в небе дракон творит чудеса», «Черепахе, как члену семьи морского царя, десять тысяч лет», которые расширяют ассоциативный ряд: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Изобраз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х знаков Бёна, их красота заключена, прежде всего, в выразительности всех пласт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найденном равновесии, в отсутствии застывшей симметрии. В легкой скорописи Юльвана, в которой кроется затаённая внутренняя сила кисти, главное – движение, гибкость и слитность при умеренной силе нажима. Для него важны начальные и конечные штрихи, потому что они, как камертон, создают движение от одного знака к другому. Движение кисти для мастера было равносильно «движению жизни», духовному просветлению, дающему силы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живописно-графических свитков.



Бён Чхан Хон / Юльван / (1930-2010)
Дракон. «Парящий в небе дракон творит чудеса». 2008 г. (слева), **«Морская черепаха»** 2008 г. (справа)
 Бумага, тушь, напыление. 129,5x66; 184x76,5
 Поступление: с выставки «Искусство письма» (СОХМ), 2009 г.
 КП-8559 Г/в-3614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Владивосток - Сахалин~ на одной волне~



Ура! У нас каникулы! И в этот раз мы по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Незабывае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произвела турбаз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Я увидел, что сахалинцы очень любят и гордятся своим островом. Историю острова мы знаем по книге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894г.). Почему 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по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Как отрази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на его дальнейшей жизни? Эти вопросы мы бесконечно задавали друг другу в ходе нашей поездки. Несомненно, книга остаётся бесценной, её будут изучать на уроках литературы многие покол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Она содержит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ую ценность, в ней отражение ментальности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в XIX веке, которая сохранилась и по сей день-любовь к лесу и морю, морским и лесным дарам. Всё, что отражается в языковой оценке, обладает ценностью-аксиологичностью, как и сама родная литература.

Аксиологический аспект литературы - это изучение учебного материала на уроке через литературный сценарий, обладающий ценностной ориентацией.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м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литературными сценариями «Пасхальный Благовест» и «Великая Победа в стихах».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могло нам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нашей страны. Хотя подготовка заняла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сил, но в результат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ы и довольны.

Я считаю, что такие литературные сценарии, помогают ученикам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кругозор и получ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в учёбе. Мы учимся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выступать перед публикой 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сё это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опытом и пригодится в дальнейшей жизни.

Живоложный Роман, Ученик 6 «В» класса «Школа № 56» г. Владивосток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время дарить подарки

В канун Нового начинается марафон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й и подарков,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уют пред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вижения и т.д.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активно организуют различные предновогодние встречи, поздравляют пожилых людей.

Для бабушек из Корсакова накрыли стол

22 декабря, в день зим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в Корее принято есть жидкую кашу из красных бобов(팥죽). Эту похлебку очень люб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бабушек из Корсак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йона специально накрыли в это день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Кстати, патхджок бабушки приготовили сами по старым семейным рецептам.

АСК преподнесла подарки пожилым людям



Активисты недавно созданной АСК(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вес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арше 85-лет. В их числе и бабушка Соня (И Со Гви), которой исполнилось в этом году 99 лет. Они разнесли по домам кашу патхджок,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а также пользующие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унные календар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Изготовлением календарей на пожертвования корейцев и организаций Р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10 лет занимается 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Н. В этот раз АСК решила также вложиться в календари и пожертвовать на это деньги.

"Поддержка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23 декабря 2023 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СК и медицинский персонал провели чекап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л проведен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звития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ЛФК, физиопроцедуры и общий осмотр врача-терапевта, сообщается в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е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был накрыт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приготовлены подарки, в том числе и календари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Именно РООСК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партнером КИ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й до пандемии ежегодно приезжали на Сахалин, ездили вместе по районам 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 вручали календари пожилым сахалинцам. Календари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на Сахалин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дни из первых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их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овогодние подарки вручили больным и лучшим врачам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Ханин» 25 декабря посетили военный госпитал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ручили 80 комплектов подарков для пациентов госпиталя. Были также отмечены лучшие врачи, а также начальник госпиталя Виталий Нам. А еще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готовила музы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торжества: певец Петр Кан исполнил новогоднюю песню.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В КазНУ обсудили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 Казах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мени Аль-Фараби состоя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в контексте 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посвященная 70-летию заслуженного деятеля Казахстана, профессора,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Ким Германа Николаевич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 Ректор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Жансеит Туймебаев, директор Архив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ия Мустафин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ъединени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Максат Нурмагамбет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Юрий Ши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м. Р.Б.Сулейменова Дукен Масимханул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вуза, ученики и родные юбиляра.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 выпускник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уть начал в 1977 году на кафедр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н работал профессором кафед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факуль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возглавлял кафедру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Кроме того, плодотворно трудился профессором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ША и Японии. Мы с гордостью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вс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жизнь Кима Германа Николаевич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наш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рофессор Ким как выдающийся ученый-педагог, внес и вноси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 поздравил ректор КазНУ Жансеит Туймебаев.

В ходе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зачитаны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письм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К, заведующего секретариатом АНК, Адм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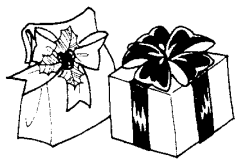
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Марат Азильхан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я отдела по развитию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 секретариата АНК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г. Алматы Назар Балгимбаева,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Тэхвана и другие.

Такж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профессоров-корееведов, ректоров, директоров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ов и центров.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обсудили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 показан видеofilm о жизни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им Германа Николаевича,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кафедро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ыставка научных трудов ученого.

Пресс-служба КазНУ имени Аль-Фараби



Счастья в Новом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РК определил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олжно более серьёзно отнестись к проблеме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сосредоточившись на путях её решения на новом уровн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26 декабря на последнем в этом году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призвал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ведомства заняться проблем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экстренном режиме,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ремени совсем мал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омнил, что все попытк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20 лет, оказались неэффективными. Что каса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то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адресной с учётом ситуации в каждой конкретной семь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зидент фактически признал провал прежне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ая не только не помогла увеличить рождаемость, но и привела к её дальнейшему сокращению. Кроме того, Юн Сок Ёль подтверд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завершению реформ в сферах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ынка труда 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целях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Он призвал кажд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ринять меры к чёткому исполнению бюджет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который был утверждён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С этой целью необходимо расширять обмены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К сохрани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мпорт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РК сохрани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мпорт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з восьми японских префектур, действующие с сентября 2013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6 дека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ак Ку Ён.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воз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Япон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проверкой на содержание радиоактивных веществ в каждом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е. Ранее агентство Киодо цусин сообщило о принятии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Японии программы расширения экспорта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экспорту морского гребешка. На 2025 год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этот продукт на сумму 461 млн долларов, и 6,3% этой суммы якобы должна составить до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ынка. Китай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л свой рынок для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сле решения Японии начать сброс очищенной радиоактивной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нацелилось на рынки РК и Евросоюза.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в вузах в 2024 году может увеличиться на 5,64%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могут повысить 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5,64% по сравнению с этим годом. Как сообщили 26 дека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на 1,59% вы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повышение 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не должно превышать более чем в 1,5 раза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инфляции за три предыдущих года. В период с 2021 по 2023 год средний рост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составил 3,76%. Между т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звало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узов не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ом повышения стоимости обучения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а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заморозить её на уров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учитывая слож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Тем университетам, которые заморозят или снизят 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ипендии.

РК наращивает экспорт «умных ферм»

В этом году экспорт «умных ферм»,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о выращива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рос в 2,6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Как сообщили 26 дека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такого роста является рост закупок комплексов странам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где проблем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оит очень остро. В Объединё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ах заключены три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деловыми кругами двух стран. В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и Катаре активно велась работа по ознакомлению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умног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Альбом пианиста Им Юн Чхана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New York Times

Альбом с записями выступл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ианиста Им Юн Чхана "Им Юн Чхан - Лист: Трансцендентальные этюды"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лучших альбомов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2023 года по версии газеты New York Times. В альбом вошло выступление Им Юн Чхана в полуфина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Вана Клиберна 2022 года, где он стал самым молодым победителем в истории конкурса. «Он настолько ошеломляюще совершенен в техническом плане, и настолько утончён в музыкальном плане, что даже гроз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его исполнении звучат легко», - пишет New York Times.

(RKI)

Что принесет зеленый деревянный Дракон в 2024 году каждому знаку зодиака

Гороскоп для Овна на 2024 год

Овен (21 марта – 20 апреля) - амбициозный, независимый, нетерпеливый.

В 2024 году Овны выиграли в звездную рулетку!

Будущий 2024 год закружит вас водоворотом новых идей, событий, впечатлений. И Овнам это по душе, ведь предстатели этого знака – первые в зодиакальном круге, с них начинается каждый новый цикл. Поэтому они обожают все новенькое и любят быть первыми, быть лидерами и капитанами своей жизни.



Гороскоп для Тельца на 2024 год

Телец (21 апреля – 20 мая) - основатель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практичный.

Тельцы, кроме стабильности, у вас будет в течении года период, когда сама Фортуна постучится в ваши двери – в лице Юпитера в знаке Тельца.

Учите: если вы хотите чего-то крупного, смел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и яркого – запланируйте это н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май. А еще лучше – на январь/февраль, так как там ожидается еще и подмога Сатурна. Впрочем, даже если вы ничего не планируете, вам все равно достанется какой-то из счастливых билетов в жизненной лотере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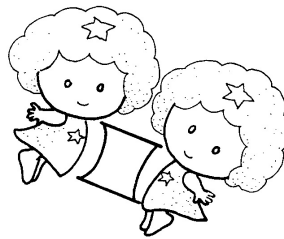


Гороскоп для Близнецов на 2024 год

Близнецы (21 мая – 21 июня) - любопытный, нежный, добрый.

Близнецы, возрадуйтесь! В 2024 году к вам в гости спешит Юпитер, который перейдет из Тельца в Близнецы в конце мая.

Когда эта планета «большого счастья» проходит по нашему знаку зодиака – она всегда приносит какой-то подарок судьбы. Какой именно – останется пока сюрпризом, но в целом фактор везения и счастливого случая с июня 2024 года повышается абсолютно у всех Близнецов.



Гороскоп для Рака на 2024 год

Рак (22 июня – 22 июля) - интуитивны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умный, страстный.

Что сказать – в жизни Раков наступает «золотое время». Абсолютно все важные планеты оказывают счастливое влияние на этот знак.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размеренность жизни (а Раки это обожают), с другой – не быстрое, но неуклонное движение вперед, к развитию и росту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как раз то, чего не хватало).



Гороскоп для Льва на 2024 год

Лев (23 июля – 22 августа) - горделивый и самоуверенный.

Львы, в 2024 году на вашей улице наступает астрологический праздник!

Можно, наконец, расслабиться, поскольку все нападки планет на этот знак в 2024 году заканчиваются. Готовьтесь пожинать плоды своих усилий и преодолений в предыдущие 3 года. Чем больше вы вложили энергии, времени и силы своего намерения в какие-то цели и сферы жизни, тем более весомые плоды получите.



Гороскоп для Девы на 2024 год

Дева (23 августа – 23 сентября) - элегантный,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добрый.

Девы, в 2024 году ваш год будет наполнен энергией и вдохновением, и обязательно запомнится как интенсивный и яркий. Сатурн научит вас терпению и навыку доводить начатое до конца, а Непту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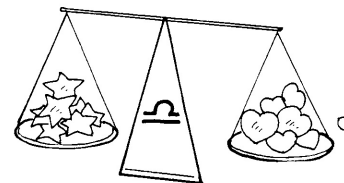
раскроет ваши творческие и интуитив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Неожиданные открытия и силь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вас как в новых местах планеты, так и в глубинах собственного «Я».

Гороскоп для Весов на 2024 год

Весы (24 сентября – 23 октября) - дипломатичный, артистичный.

Весы, в 2024 году вы – одни из главных героев наступающего года, так что самое время гордо поднять голову и взойти на пьедестал всеобщего внимания и слав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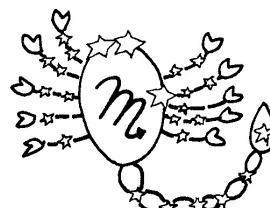


В вашей жизни продлится глобаль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которую начали затмения в 2023. Цикл затмений, идущий по Весам, продолжит раскручивать новый этап в жизни, повлечет цепочку новых событий и перемен.

Гороскоп для Скорпиона на 2024 год

Скорпион (24 октября – 22 ноября) - чарующий, страстный, независимый.

В 2024 для Скорпионов наступит полоса затишья после предыдущих двух бурных лет. Жизнь будет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в привычное русло, что точно вас порадует. Ведь Скорпион относится к так называемым «постоянным» знакам в астролог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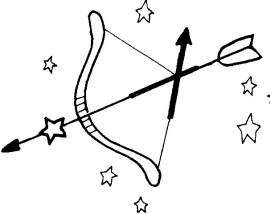


Из названия уже понятно, что эти знаки – любители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постоянства. В новом году жизненный микс Скорпионов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в основном из семьи, близких связей, увлечений и здоровья.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будет играть большую роль, чем внешний.

Гороскоп для Стрельца на 2024 год

Стрелец (23 ноября – 21 декабря) - авантурный, творческий, волевой.

Стрельцы в 2024 году вас ожидает непростой год, поэтому стоит вооружиться прогнозом в качестве «соломки».



Сатурн, Нептун и Юпитер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вам всяческие стрессы и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преодолением сложностей. Нептун, к примеру, «наколдует» тумана, хаоса и иллюзий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жизни. И в целом вы будете гораздо более склонны к заблуждениям, чем в любое другое время.

Гороскоп для Козерога на 2024 год

Козерог (22 декабря – 20 января) - дотошный, умный, деятельный.

Козероги в 2024 году остаются на завоеванных в предыдущие 3 года вершинах, с гордостью осматривая свои «владения».

А особо упорные предстатели знака поднимутся еще выше, вед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ланеты будут на их стороне.



Гороскоп для Водолея на 2024 год

Водолей (21 января – 18 февраля) - одаренный воображением и интуитивный.

Водолеи, в 2024 году вас ждёт разнообразный и противоречивый год, наполненный калейдоскопом событий и эмоций.

Вторая часть года, благодаря Юпитеру в Близнецах, намекает на блестящую реализацию Водолеев в творчестве, любви и отношениях с детьм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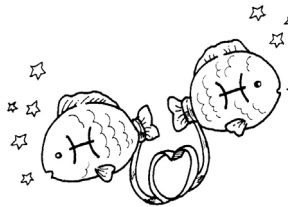


Гороскоп для Рыбы на 2024 год

Рыбы (19 февраля – 20 марта) - творческий, чувствительный, артистичный.

Рыбы, для вас 2024 год, год Дракона, станет по-настоящему красивым и жить его точно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Планеты устроят настоящий парад, освещая вам путь к новым горизонтам. А осенью пройдет еще и лунное затмение в Рыбах, открывая новый жизненный цикл длиной в 10 ле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 сайтов)



2024년

갑진년

음력설
2.10
한식
4.5
단오
6.10
초복
7.15
중복
7.25
말복
8.14
추석
9.17
성탄절
12.25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1 11.20	8 27	15 5	22 12	29 19		5 26	12 3	19 10	26 17		4 24	11 2	18 9	25 16	
화	2 21	9 28	16 6	23 13	30 20		6 27	13 4	20 11	27 18		5 25	12 3	19 10	26 17	
수	3 22	10 29	17 7	24 14	31 21		7 28	14 5	21 12	28 19		6 26	13 4	20 11	27 18	
목	4 23	11 12.1	18 8	25 15		1 12.22	8 29	15 6	22 13	29 20		7 27	14 5	21 12	28 19	
금	5 24	12 2	19 9	26 16		2 23	9 30	16 7	23 14		1 1.21	8 28	15 6	22 13	29 20	
토	6 25	13 3	20 10	27 17		3 24	10 1.1	17 8	24 15		2 22	9 29	16 7	23 14	30 21	
일	7 26	14 4	21 11	28 18		4 25	11 2	18 9	25 16		3 23	10 2.1	17 8	24 15	31 22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1 2.23	8 30	15 7	22 14	29 21		6 28	13 6	20 13	27 20		3 27	10 5	17 12	24 19	
화	2 24	9 3.1	16 8	23 15	30 22		7 29	14 7	21 14	28 21		4 28	11 6	18 13	25 20	
수	3 25	10 2	17 9	24 16		1 3.23	8 4.1	15 8	22 15	29 22		5 29	12 7	19 14	26 21	
목	4 26	11 3	18 10	25 17		2 24	9 2	16 9	23 16	30 23		6 5.1	13 8	20 15	27 22	
금	5 27	12 4	19 11	26 18		3 25	10 3	17 10	24 17	31 24		7 2	14 9	21 16	28 23	
토	6 28	13 5	20 12	27 19		4 26	11 4	18 11	25 18		1 4.25	8 3	15 10	22 17	29 24	
일	7 29	14 6	21 13	28 20		5 27	12 5	19 12	26 19		2 26	9 4	16 11	23 18	30 25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1 5.26	8 3	15 10	22 17	29 24		5 2	12 9	19 16	26 23		2 30	9 7	16 14	23 21	30 28
화	2 27	9 4	16 11	23 18	30 25		6 3	13 10	20 17	27 24		3 8.1	10 8	17 15	24 22	
수	3 28	10 5	17 12	24 19	31 26		7 4	14 11	21 18	28 25		4 2	11 9	18 16	25 23	
목	4 29	11 6	18 13	25 20		1 6.27	8 5	15 12	22 19	29 26		5 3	12 10	19 17	26 24	
금	5 30	12 7	19 14	26 21		2 28	9 6	16 13	23 20	30 27		6 4	13 11	20 18	27 25	
토	6 6.1	13 8	20 15	27 22		3 29	10 7	17 14	24 21	31 28		7 5	14 12	21 19	28 26	
일	7 2	14 9	21 16	28 23		4 7.1	11 8	18 15	25 22		1 7.29	8 6	15 13	22 20	29 27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10월					12월 음력 11-12월					
월		7 5	14 12	21 19	28 26		4 4	11 11	18 18	25 25		2 2	9 9	16 16	23 23	30 30
화	1 8.29	8 6	15 13	22 20	29 27		5 5	12 12	19 19	26 26		3 3	10 10	17 17	24 24	31 12.1
수	2 30	9 7	16 14	23 21	30 28		6 6	13 13	20 20	27 27		4 4	11 11	18 18	25 25	
목	3 9.1	10 8	17 15	24 22	31 29		7 7	14 14	21 21	28 28		5 5	12 12	19 19	26 26	
금	4 2	11 9	18 16	25 23		1 10.1	8 8	15 15	22 22	29 29		6 6	13 13	20 20	27 27	
토	5 3	12 10	19 17	26 24		2 2	9 9	16 16	23 23	30 30		7 7	14 14	21 21	28 28	
일	6 4	13 11	20 18	27 25		3 3	10 10	17 17	24 24		1 11.1	8 8	15 15	22 22	29 29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한 한 춘 수 칩 분 명 우 하 만 중 지 서 서 추 서 로 분 로 강 동 설 설 지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6 20 4 19 5 20 4 19 5 20 5 21 6 22 7 22 7 22 8 23 7 22 7 21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위문품 전달

이기철 청장 "동포들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보듬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연말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1일 8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주훈준 안산 고항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이 마을 사할린 동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철 청장은 전달식에서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와 그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런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포들이 어디 있든지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을 계기로 고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뿐 아니라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원폭 피해 동포, 파독 근로자, 고려인 동포처럼 소외된 재외동포를 모국에 초청하는 등 국



이기철 청장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해외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

국내 7개 사이버대와 협력해 학위과정 지원사업 운영 3학년으로 편입해 수학 2년 동안 등록금 일부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학위과정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7개 사이버대학교와 협력해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위과정 3학년으로 편입해 수학하게 되며 2년 동안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7개 사이버대학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이다.

학위과정 신청 희망자는 각 대학별 모집기간 내에 입학지원서를 접수하면 되며, 이후 재외동포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텐다코리아 홈페이지(study.korean.net)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띠별운세와 별자리를 함께 보는 2024년 신년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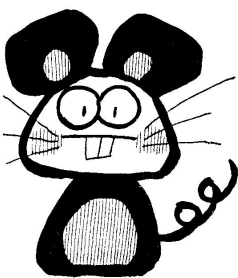
2024년 중국 동양신점에서의 운세에 따르면, 용은 권위, 번영, 행운의 상징으로 강조됩니다. 용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매력적인 존재, 독특한 성격, 강력한 리더십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중국 동양신점 운세는 새로운 시작과 장기적 성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인 용의 특성과 융합됩니다. 이 조합은 성장, 진전,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2024년을 위한 띠별 운세입니다. 띠별 운세가 싫으시면 별자리 운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쥐띠 (사수자리):

쥐띠는 2024년에 번영의 해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과의 호환성은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공의 해로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인정과 성취의 시기로, 쥐띠는 재무를 관리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중함은 투자와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띠 (염소자리):

소는 전통적 가치와 나무 용의 에너지 사이의 잠재적 충돌로 인해 2024년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는 접근 방식을 변경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해는 소에게 변화에 대한 적응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물병자리):

호랑이는 나무 용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에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특히 관계에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품질을 중시하는 태도로 인해 감정적 연결을 강화할 것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며, 돈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토끼띠 (물고기자리):

토끼띠에게는 2024년에 유리한 이익과 잠재적인 손실이 혼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해는 다양한 상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적응력과 인내를 통해 효과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확실성 속에서 적응성과 근면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용띠 (양자리):

용띠는 2024년에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단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포부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일상 업무 속에서 사랑 생활을 새롭게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시작과 노력을 통한 개인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뱀띠 (황소자리):

뱀띠는 나무 용의 에너지와 호환성이 좋아 2024년에 유리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합은 개인 및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며, 신중한 성품으로 인해 금융 기관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뱀띠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으로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말띠 (쌍둥이자리):

말띠는 2024년에 나무 용의 에너지로 인해 도전과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적응성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무 상담이나 은행가의 조언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도전 속에서 감정적 만족과 안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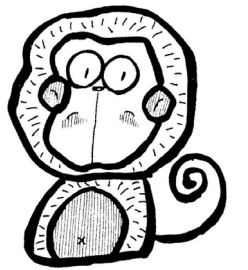
양띠 (게자리):

양띠는 2024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헤치며 변화의 기회와 도전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적응력을 유지하고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하는 양띠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결정은 관계나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와 변형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자자리):

원숭이띠는 2024년에 번영의 해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어울려 개인 및 전문 분야에서의 성공과 독특한 매력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통해 성장과 개발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는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계획과 노력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탉띠 (처녀자리):

수탉띠는 2024년에 다양한 운세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 용의 영향으로 더 매력적이고 고려 깊은 성품이 강조될 것이며, 이 해 동안 발생하는 도전은 결단력과 유연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면서 수탉띠는 결단력과 적응성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개띠 (천칭자리):

개띠는 2024년에 나무 용의 에너지에 의해 도전적인 상황과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감과 감정의 평형을 유지하려면 내적인 힘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돼지띠 (전갈자리):

돼지띠는 2024년을 성장과 확장의 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무 용의 에너지로 인해 초기에는 동기가 부족할 수 있지만, 봄이 시작되면 새로운 기회와 사업의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돼지띠는 새로운 전망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감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로맨스의 기회도 나타날 것입니다.



2024년은 각 동물띠에게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자료들에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24 декабря открыли сезон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дробн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ришедших на праздник в стилизованных и новогодних костюмах,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бесплатный подъем с 11:00 до 11:45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где всех встречали Дед Мороз и Снегурочка с подарками.

В этот день любители активной и спортивной зимы увидели выставку ратраков, снегоходов и багги, собачьи хаски, встречу с Дедом Морозом,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стов «Русский терем». Кроме того, их жд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лепке хинкалы в ресторане «Гиорги», по рисованию новогодних открыток, дет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флешмоб, большой квест на гор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 традиции в комплексе проходил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от партнеров.

«러시아 제조» 축제 - 박람회가 중국에서 열려

2024년 1월 27일(일)부터 2월 4일(일)까지 중국 라오닝 성에서 중국 새해를 맞아 <러시아 제조> 축제-박람회가 처음 열린다. 중국의 선양과 다렌 시에서 1000가지 이상 러시아의 제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유익한 스포츠-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축제-박람회는 러시아 정부와 라오닝 지역 인민정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수출 지원 국립 연구소인 러시아 수출센터가 주최한다.

"박람회에서는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식품들을 맛볼 수 있는데 제과, 신선한 해물, 다양한 음료와 유제품을 비롯한 여러 식품들은 새해 명절 식탁에 내놓을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거라 확신한다. 러시아 식품

의 중요한 장점은 유기농 식품 생산과 높은 품질이다."라고 러시아 수출센터의 회장 웨로니카 니키쉬나가 말했다.

러시아의 제품은 중국 전자거래 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러시아 제품의 종류는 현재 '러시아 제조' 국가 브랜드 아래 일반 서민 상점에서도 수천 개 품목에 달한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하는 러시아 명절 초콜릿 세트와 천연 과일주스, 신선한 유제품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새해 식탁을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축제의 일환으로 '러시아 수출업체'팀과 '중국 수입업체' 팀 간 친선 하키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기업 및 정부기관과 사회단체의 대표들도 참가한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도 열리며, 선양과 다렌 시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 교향악단과 중국 음악인들이 참가하는 갈라 콘서트도 개최된다.

В Кита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ярмарка «Сделано в России»

В Китае, в провинции Ляонин в преддверии кита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с 27 января по 4 февраля 2024 г. пройдет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ярмарка «Сделано в России». В городах Шэньяне и Даляне китайские потребители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более 1000 российских товаров,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асыщ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ь-ярмарк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Российским экспортным центр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нститутом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ортер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и Народ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винции Ляонин.

«На ярмарке можно будет попробовать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очень любят в России. Это и сладости, и свежие морепродукты, 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напитки, и молочная и другая продукция, которая, мы уверены, не только займет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новогоднем столе, но и покориет сердца китайск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Важное достои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 её органиче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 поделилась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экспортного центра Вероника Никишина.

Купить российскую продукцию можно будет также на электронных торговых площадках Китая. Ассортимент товаров из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доступны к покупке китайскими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уже сегодня насчитывает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позиций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под страновым брендом «Сделано в России». Например, новогодний стол отлично украсят праздничные наборы российского шоколада, любимого детьми по всему миру, соки из натуральных фруктов, а также российское мороженое из свежих сливок.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пройдут товарищеские хоккейные матчи между сборными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ортеров» и «китайских импортеров».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бизнес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Так, в городах Шэньяне и Даляне пройдут гала-концерты с участием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китай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사할린에서 <러시아의 스키어> 스키 경주 등록 시작

12월 22일 사할린에서 <러시아의 스키> 대규모 스키 경주를 위한 등록이 시작됐다. 참가 신청은 '고스슬룩'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5일간 참가 신청자들에게 등록 양식이 제공된다. 사할린 지역에서 스키 경주는 2024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 스포츠 행사는 국가기획 '인구통계학'의 <스포츠 - 생활의 표준> 연방 기획이 주관한다.

На Сахалине идет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гонку «Лыжня России»

22 декабря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регистрацию на массовый лыжный забег «Лыжня России».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можно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В течение 5 дней заявителю придет форма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ам забег на островах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10 февраля 2024 года. Отметим, что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нициировано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3-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